

근대 인식론에서 ‘반성’ 개념에 관한 연구

— 경험적 반성, 논리적 반성, 초월적 반성 —

박 진*

I. 머리말

본 연구의 주제는 서양 근대 철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인 ‘반성’ 개념에 대한 연구다. 서양 근대 철학의 역사가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특징 지워지는 ‘방법론적 반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두 흐름을 ‘반성적으로 종합’한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철학이며 이를 토대로 ‘사변적 반성’으로 나아가 서양철학사상 가장 큰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헤겔로 대변되는 독일 이상주의에로의 전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대철학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철학 전통의 특징과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의 국면들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왔을 뿐 근대 철학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반성’ 개념이나 그 기초 원리인 ‘동일과 차이’, ‘질료와 형식’ 같은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는 등한시되어 왔다고 보인다.

그런데 칸트는 그의 주저 『순수이성비판』 속에서 아마도 가장 드물게만 주목되어 온 <반성개념> 장에서 모든 반성 일반에 사용되는 필수 도구로서 “비교개념”(conceptus comparationis)(B318)이라고도 불리는 4쌍의 반성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일과 차이’, ‘일

* Göttingen 대학 Post-Doc.

치와 모순', '내면과 외면', '질료와 형식'과 같이 맞짝 개념들로, 칸트는 이들 개념쌍을 오용함으로서 반성개념의 모호성(Amphibolie)을 야기시킨 라이프니츠-볼프도 대면되는 종래의 합리론적 형이상학에 대해 비판적 반성을 수행하고 있다.¹⁾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분석론의 부록으로 삽입한 <반성개념> 장의 시술 내용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종래의 “논리적 반성”(logische Reflexion)과 대비시켜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초월적 반성”(transzendente Reflexion)의 성격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의 의도는 철학사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을 결합시켜 그가 시술하고 있는 초월적 반성의 성격을 종래의 경험론자와 합리론자들의 반성의 성격과 대비시켜 고찰해 봄으로써 칸트의 반성의 특징과 철학사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 주려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역과 귀납과 같은 학문 방법론의 모색으로서만 외적으로 특징지어왔던 근대 철학의 내면적 핵심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자 한다. 즉 필자는 철학사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을 결합시켜 ‘반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근대철학사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유형

1) 필자는 일련의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반성개념> 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종래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의 내용을 다뤘고(『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II)』, 『철학』65, 한국철학회 2000 겨울 참조) 또한 이들 반성개념들이 1772년 비판철학의 체계구상 이래 1781년 순수이성비판 초판을 출간하기에 이르기까지 진 비판기부터 이미 그의 사고의 형성 과정 속에서 범주들의 발전을 위한 심미리보다 사용되고 있었음을 밝혔다.(『초월적 반성의 원리』, 『철학연구』43, 철학연구회 1998 가을, 194-219) 즉 칸트 철학의 근본 반성틀인 질료와 형식을 비롯하여 동일과 차이, 인지와 보습, 내면과 외면과 같은 반성 원리들은 비판기의 칸트의 반성작업의 필수적인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판철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칸트의 초기 사유에 있어 9년여에 걸친 오랜 숙고 속에서 주도적인 반성틀로서 기능했다고 보여진다. 또 이런 반성개념들은 종래의 합리론자들이 자신의 형이상학의 체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체계를 가능케 했던 근본 반성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I)』, 『철학』 57, 한국철학회 1998 겨울, 167-195)

과 그 의미를 천착해 봄으로써 근대적 인식론과 방법론적 반성의 심장부를 해부해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반성의 필수 도구로서 여겨지는 바, 동일과 차이와 같은 反省개념들과 더불어 수행되는 反省 일반의 本質이 해명되어야 한다. 도대체 반성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철학함을 특징지우는 비판적-초월적 반성은 종래 철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온 여타의 반성들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이제 이하에서 필자는 경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내적 관찰인 경험적 반성이나, 이성론자들에 의해 행해진 한갓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하는 논리적 반성과 구별되는 칸트의 초월적 반성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한다.

II. '반성' 일반에 관하여

1. 경험적 반성

먼저 경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반성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경험론을 대표하는 로크에게서 이런 경험적 반성의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론자들과 달리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유관념(idea innata)을 부인하고 그 자체로 볼 때 마음은 “백지”(tabula rasa)와 같다고 본 로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의 재료인 모든 표상들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이 쉽게 대답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한 마디로 경험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 안에 기초하며,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²⁾

2) Locke, *Essay* II, 1, 2.

로크는 이러한 경험의 두 원천을 구별하고 있다. 즉 하나는 “단순 관념들”(simple ideas)을 제공해 주는 마, 외부 대상들에 대한 지각으로서의 “각각”(sensation)이며, 다른 하나는 로크가 “내감”(internal sensation)이라 부르는 마음의 내적 활동의 지각인 “반성”(reflection)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후자다. 이때 로크는 “만성”이라는 말로서 “마음이 자기 자신의 기능들과 그 방식을 획득하는 것을 주목하는 작용(notice)”을 의미하며 이런 작용에 의해 “지성 속에 이런 마음의 기능들에 관한 관념들이 생긴다.”³⁾고 설명하고 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밖을 향하며, 따라서 감각이 관념의 주된 원천이다.

“사람들은 의식 감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사라기 때문에 그들이 좀더 싱숙한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좀처럼 자신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⁴⁾

그러나 비록 일반적으로 반성 또는 내성이 감각과 동일한 정도로 자주 수행되지는 않을지라도, 로크는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의욕하는 것과 같은 심리 작용에 관한 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대한 내적 경험[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로크에 있어 반성이란 경험적 자기 관찰 또는 자기 지각이요, “그 대상”은 “마음의 기능 내지 작용들”(the operations of our own minds within)이다. 따라서 이런 “만성에 의해 획득된 단순 관념들”은 의식의 작용들에 대한 표상들, 즉 “지각 또는 사고작용”(perception or thinking) 그리고 “의욕 또는 의지작용”(volition or willing)이다.⁵⁾ 이때 사고하는 힘은 “지성(the understanding)”이라 불리지고, 의욕하는 힘은 “의지(the will)”라고 불려진다. 그리고 로크는 “마음 속의 이 두 능력 또는 힘들”을 “기능들(faculties)”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마음의 기능에 대한

3) Locke, *Essay* II, 1, 4.

4) Locke, *Essay* II, 1, 8.

5) Locke, *Essay* II, 6, 2.

경험 심리적인 관찰인 로크식의 반성을 우리는 경험적 반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이다.⁶⁾ 여기서 모든 관념들의 기원에 관한 로크의 이런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즉 로크가 모든 관념의 원천을 <외적> 지각인 “감각”과 <내적> 지각인 “반성”으로 구분할 때, 또 만성의 대상인 “마음의 기능”들의 <차이>를 “지각 또는 그와 <동일>한 사고, 의지 또는 그와 <동일>한 의욕”으로 분류할 때 이미 <안>과 <밖>, <동일>과 <차이>라는 만성개념 쌍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만성개념들 자체도 그 원천상 감각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들 원리는 로크의 철학적 만성 속에서 구별 일만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모든 경험에 앞서는 실험적 원리가 아닌까? 로크는 ‘동일’(identity)과 ‘차이’(diversity)의 개념이 “마음의 본성·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생긴다 “최초의 작용”이며, 따라서 모든 인식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임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즉, 로크에 의하면 모든 “인식은 관념들의 일치(agreement) 혹은 불일치(disagreement)의 지각”이다.

“이런 일치와 불일치의 첫 번째 종류가 동일(identity)과 차이(diversity)다. 이는 마음이 어떤 감성이나 관념을 지닌지라도, 그 관념들을 지각하기 위해 수행되는 마음의 최초의 활동(the first act of the mind)이요, 마음이 그것들을 지각하는 한에서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최초의 활동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absolutely necessary)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도대체 아무런 인식도, 추론도, 상상도, 생각들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즉 마음은 이것에 의해 각 관념이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지각하며, 모든 판명한 관념들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는 다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런 고통이나 노력이나 연역 없이, 지각하고 구별하는 마음의 자연적인 힘(natural power)에

6) 이런 경험적 반성은 칸트에 있어서는 “내감”(innerer Sinn)에 해당되며, 칸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학”(Anthropologie)이나 “경험적 심리학” 또는 “내감의 심리학”(B405)이 나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그는 경험적 반성을 고유한 철학의 영역 밖에 설정한다.(B405)(*Anthropologie* § 4, Anm. 7, XVII, 413f, 424f 참조; *Metaphysik - Pölitz*, S. 126~129 참조)

의해 단번에(at first view) 지각한다.”⁷⁾

그렇다면 마음은 한갓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 자체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만싱개념들을 도구로 관념들의 기원을 해명하기 위해 로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적 만싱 활동 자체도 그가 관념의 두 원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 한갓 수동적인 만싱과는 구별되는 능동적인 만싱 작용으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을까?⁸⁾ 로크는 ‘능동적인 힘’의 관념 자체가 만싱 또는 내성에서 유래함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각각을 통해 지각되는 물체들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힘>에 관한 어떤 명료하고 뚜렷한 관념도 주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작용들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통해 우리는 이런 관념을 지니게 된다.”
 주 “우리는 자신 안에서 여러 마음의 행위들과 신체의 운동들을 일으키거나 억제하고 지속시키거나 끝내게 하는 힘을 발견한다.”⁹⁾ “물신

7) Locke, *Essay* IV, 1, 4.

8) 로크가 수행한 감각과 반성의 구별자체가 또 다른 고차적인 반성 즉, 로크 자신의 인식론적 반성에 의한 것이며 이렇듯 표상들의 위치와 관한 철학적 반성을 칸트는 개념들의 관계만을 비교하는 이성론자들의 한갓 논리적 반성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칸트는 “이런 탐구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 놓은 것은 유명한 로크의 공(功)”(B119)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개념들의 원천을 오로지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경험적 인역”을 시도함으로써, 단지 “사실문제”(quid facti)에 해당하는 “심리학식 도출”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된다.(B119, cf. R. 4846; R. 4851) 이런 로크의 철학적 만싱은 “표상들과 그 상이한 인식 원천들과의 관계”를 반성하는 칸트의 “초월적 반성” 속에 지양되어 보존되어 있다. 즉 칸트는 원천상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는 선형적 개념들이 어떻게 경험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권리문제”(quid iuris)를 제기하고 이를 순수지성개념의 “초월적 연역”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칸트는 자신의 입장을 모든 개념이 경험에서 생겨났다는 로크식의 “다원 발생설”이나 이미 신에 의해 자연과 인간의 이성이 동일한 형식으로 창조됐다는 “예정형성설”과 구별하여 “순수이성의 추가발생체계”(System der Epigenesis der reinen Vernunft)(B167, R. 5637)로 특징지어주고 있다.(R. Broecken, *Das Amphiboliekapitel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Köln, 1970, S. 33 참조)

은 자체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자신에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은 永遠으로부터 왔다가 물질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하여 산출되고 추가된 것임에 틀림없다.”⁹⁾

또한, 수지하듯이 로크는 관념 일반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단순 관념들의 기원은 감각과 반성이라는 경험의 두 원천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복합관념의 유래는 단순 관념과 달리 한갓 수동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마음의 능동적인 기능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로크는 이 문제를 지성의 비교·결합·추상작용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미 로크가 출발점에서 전제했던 경험론의 원리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에초의 그의 전제와는 달리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아무런 자발적인 기능도 갖지 않는 무성격의 백지(tabula rasa)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념들을 비교하고 결합하며 분리 또는 추상함으로써 일반개념을 만들어 내는 능동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이런 로크식의 추상작용은 이미 경험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한, 칸트는 이를 개념을 그 형식상 산출하는 논리적 지성 활동(die logischen Verstandes-Actus)의 하나로서 간주하여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다.¹²⁾ 이런 자발적인 지성의 기능을

9) Locke, *Essay* II, 21, 5.

10) Locke, *Essay*, IV, 10, 10.

11) 로크는 “마음이 단순관념들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동적(wholly passive)”이지만, 복합관념들에 있어서는 “그 원천(their original)이 전혀 다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복합관념들을 형성함에 있어 마음은 종종 능동적인 힘(active power)을 행사한다”고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Locke, *Essay*, II, 22, 2) 로크는 복합관념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들”(Acts of the Mind)로서 “결합”(combining), “비교”(comparing), “추상”(abstraction) 작용을 들고 있다. 즉 단순관념들의 “결합”에 의해 ‘양태’나 ‘실체’와 같은 복합관념들이 형성되고, “비교”를 통해 ‘동일과 차이’나 ‘원인과 결과’와 같은 ‘관계’ 개념이, “추상”에 의해 일반 개념이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다.(Locke, *Essay*, II, 22~27 참조)

12) *Logik*, §6.

도외시한 채 마음을 백시로 간주하여 모든 개념의 기원을 한갓 수동적인 경험으로부터만 설명하고자 했던 로크의 애초의 시도는 “개념발생론의 체계에 따라 지성의 개념들을 모두 감성화”(B327)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개념을 “형식상” 만들어 내는 논리적 지성활동들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의 논리적 만싱이라 부르기로 하자. 그렇다면 경험론자들이 제시한 논리적 만싱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만싱 일반의 워리인 만싱 개념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논리적 만싱이란 “상이한 표상들이 어떻게 한 의식 속에 파악될 수 있는지를 숙고(überlegen)하는 작용”(Logik §6)이다. 즉, 주어진 여러 표상들로부터 하나의 일반개념(conceptus communis)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표상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적인 것(notas communes)을 의식하고, 나머지 것(상이한 징표들)을 도외시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形式上” 개념의 원천인 논리적 지성 활동이다. 여기서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경험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개별 표상들을 새로로 하여 공통 징표를 ‘추상’해 내는 통해 일반개념을 산출해 내는 논리적 만싱작용으로, 이는 로크가 ‘일반관념들의 형성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상’ 작용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특수한 것들(particulars)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낱말들을 얻게 되며, 그것들이 나타낸다고 가정되는 일반적인 본성들을 우리는 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낱말들은 일반 관념들(general ideas)의 기호가 됨으로써 보편적이게 되며, 관념들은 그것들을 이러저러한 개별적 존재로 규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상태 및 그 밖의 다른 관념들을 그것들로부터 분리시킴에 의해서 보편적이게 된다. 일반관념들은 이러한 추상(abstraction)의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여러 개별자들을 표상할 수 있도록 만달이진다.”¹⁴⁾

13) 그러나 유사하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와 칸트의 “추상”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칸트의 비판적 견해는 필자의 하위논문 IV부, 2장 1), (1)개념과 판단 참조.

14) Locke, *Essay* III, 3. 6.

이런 경험적인 일반 개념을 형성하는 논리적 반성 속에서 개념의 “질료”(Materie)는 감각적으로 직관된 내용 즉 “대상”(Gegenstand)이며, 그 “형식”(Form)은 여럿에 공통적인 징표의 “보편성”(Allgemeinheit)이다.(*Logik* §2.) 즉 이런 경험적 개념들의 유래는 “내용상” 경험 대상들을 지각하는 감각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보편성의 “형식”은 비교·만상·추상하는 지성의 논리적 만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보편성 내지 일반성은 사물들의 실재적 존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단어들이긴 관념들이긴 간에 지성에 의해 자신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고안물이요 창작품일 뿐이다.”¹⁵⁾ 이렇듯 개념을 “形式上” 산출해내는 “논리적 반성활동”(logische Reflexion)은 개체를 보편 아래 포섭하고 “분류”하기 위해 개별표상들을 분석하여 비교·반성·추상하는 논리적인 지성활동으로서 우리는 이를 “귀납적 일반화” 내지 “논리적인 추상화” 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상화작용의 가능한 최고 단계는 그로부터 어떤 규정도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가장 추상적 개념 즉, 최고유개념을 제공하는다.”(*Logik* §15.)

이런 반성 속에서는 질료가 형식에 앞선다. 왜냐하면 이때 질료관 현제적이며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생생한 대상의 개별표상들이라면, 형식이란 그것들의 관계에 대한 추후적인 반성의 결과로서 생각되는 일반개념의 보편성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개별자로부터 보편으로 나아가는 만상의 기능은 단지 “주관적 타당성”을 지닐 뿐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 왜냐하면 “만상적 판단력이 특수로부터 발전시킨 보편은 단지 경험적 보편성”이요, 이는 논리적 보편성의 “한갓 유사물”(ein bloßes Analogon)(*Logik* §81.)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개별적인 경험 대상[質料]으로부터 추상된 보편성[形

15) Locke, *Essay* III, 3, 11.

式]이 논리적 보편성의 “한갓 유사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칸트가 염두해 두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논리적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2. 논리적 반성

우리는, 칸트가 개념을 형성하는 지성의 활동인 “논리적 반성” 속에서 선행자들의 두 가지 상이한 이론에 정향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칸드는 개념형성에 관해 전통적인 두 모델인 로크 식의 추상이론과 라이프니츠-볼프 학파의 이론 모두를 자신의 논리적 반성 속에서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칸드의 “반성”개념은 일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 라이프니츠 이후 18C 독일 강단철학의 공통된 특징은 라이프니츠가 ‘통각’(apperceptio)¹⁶⁾이라고도 불렀던 ‘반성’을 로크와 달리 경험적 자기지각이나 내감의 활동이 아닌, **이성의 활동**으로 간주하고 이런 ‘반성’활동을 개념적 징표들의 관계(일치와 불일치 *convenance ou disconvenance*)¹⁷⁾를 **비교·분석**하는 실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⁸⁾ 따라서 로크식의 추상이

16) G. W. Leibniz,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t. 1-7, Berlin 1882. t. 6, S. 600(*Principes de la Nature*, §4)

17) *ibid.*, t. 5, S. 129.(cf. 339-340)

18) 합리론자들이 **비교와 분석**을 이성의 기능으로, 또 반성활동의 핵심으로 중요시한 이유는 이성을 불명료한 표상능력인 자성과 명료성의 차이에 있어서 구별짓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불명료한 지각으로부터 명료한 개념에 도달하는데 징표들의 비교와 분석, 즉 반성이 필수적이다. 라이프니츠가 “반성”(la reflexion)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향한 주목”(une attention à ce qui est en nous)(*ibid.*, t. 5, S. 45)이라고 정의한 데 이어, 볼프는 “반성”(reflexio)을 “지각된 것 안에 있는 것을 향한 계속적인 주목”(attentionis successiva directio ad ea, quae in re percepta insunt)이라고 부연하여 정의했다.(Christian Wolff, *Psychologia empirica*, Leipzig 1738, §275. 또한 마움가르텐은 이성의 활동을 “진체 표상에 대한 주목”인 “비교”와 “한 표상의 부분들에 관한 주목”인 “반성”으로 세분하고 이 두 작용이 “명료한 개념”을 산출한다고 보았다(A. G. Baumgarten, *Metaphysica*, Halle 1779, §631 참조.) 이런 18C 독일 강단철학의 공통된 경향은 ‘반성’을 명료한 인

를 경험론자들이 선호한 귀납적 일반화의 방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후자는 전통적으로 이성론자들이 선호한 연역적 개념규정의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논리학자들은 일찍이 보편을 質料이라고 특수한 차이를 形式이라고 불렀다.”(B322) 즉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보편(das Universale) 혹은 類(genus)를 질료라 하고, 종차(differentia specifica)를 형식이라고 했다; 예컨대 인간은 類요, 그러므로 질료이고 학식 있는 인간은 種差요, 따라서 형식이다.”¹⁹⁾

그러나 이렇듯 보편을 질료로 고고 특수종차를 형식으로 보는 논리적 반성의 관점은, 개별 내지 특수를 재료로 고고 형식을 보편성으로 간주한 앞서 살펴본 반성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칸트가 앞에서 살펴본 논리적 반성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상반된 시각 속에서 질료와 형식의 의미 역시 상반된 규정을 얻게 된다. 즉 앞에서는 최하위의 개별자인 질료로부터 최상위에 놓인 최고유개념의 형식으로까지 기승려 올라가는 논리적 반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제시된 논리적 반성의 다른 시각 속에서는 기

식을 얻기 위해 ‘이성이 수행하는 비교 분석적 심차’로 간주한다는데 있다. 라이마루스는 『이성론』에서 “이성”을 “대상들을 비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H. S. Reimarus, *Die Vernunftlehre als eine Anweisung zum richtigen Gebrauche der Vernunft in dem Erkenntniß der Wahrheit*, Hamburg 1756, §12.), 당대의 유명한 논리학자 마이에는 “우리 인식에서 일정 정도의 명료성이 산출되는 활동”을 “인식의 분석”(resolutio, analysis, anatomia cognitionis)이라고 부른다.(G. F. Meier, *Auszug aus der Vernunftlehre*, Halle 1752, §139, Akad-Ausgabe XVI, 340) 그러나 칸트는 논리학에 대한 반성 속에서 한갓 지성의 개념 분석에 의한 논리적 명료성과 달리 상상력을 매개로 대상 관련적인 “종합적 명료성”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마이이의 논리적 반성을 비판하고 있다.(Akad-Ausgabe XVI, Nr. 2884, Nr. 2290 참조)

19) *Metaphysik-Pölitz*, S. 75f.

꾸로 최고 類개념을 최초의 재료로 삼아 특수한 차이를 주목하여 하위의 種개념들로 세분화(Spezifikation)하여 규정함으로써 최하위의 개별자를 규정하는데 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시야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듯 개념들의 연관에 대한 논리적 반성의 상반된 시각을 각각 “동질성[類]의 원리”(ein Prinzip der Homogenität) 내지 동일성의 원리와 “특수화[種]의 원리”(ein Prinzip der Spezifikation) 또는 차이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동일성을 요구하는 類의 논리적 원리에 또 하나의 원리 즉 種의 원리가 대립한다. 이는 동일한 類 아래서 사물들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요구하며, 지성에게 이런 다양성과 차이성에 대해서도 동일성에 못지 않게 주목할 것을 명령한다. 따라서 차이성의 원리는 동일성의 원리의 경솔을 제한한다. 그리고 이성은 여기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관심을 나타내는 바, 하나는 類와 관련하여 외연(보편성)에 관한 관심과 다른 하나는 내포(구정성)에 대한 관심이다. ... 이는 자연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특히 사변적인 사람들)은 이종성에 대해 이블테면 직의를 품고 항상 類의 통일성만을 노리는데 반해, 다른 이들(특히 경험적인 사람들)은 자인을 부단히 아주 많은 다양성으로 분할하려고 하고 그 결과 자인 현상들을 보편적 원리에 의해 평가하려는 희망을 거의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전자의 경우에는 類로 올라가 단순성을 획득하려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類에서 출발하여 그 속에 포함된 다양으로 내려가며 이런 방식으로 체계를 확장하려고 한다. ... 그러므로 각 類는 상이한 種들을, 종은 또다시 상이한 아종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항상 또다시 범위(일반개념으로서 외연)를 갖지 않는 아종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은 그 모순 확장에 있어 어떤 중도 최하위 종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종은 이진히 각종 사물에 공통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완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개체에 직접 관계할 수 없으므로 항상 다른 개념 즉 아종들을 자기 아래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B682D)

칸트는 이렇게 최고 유개념으로부터 최하위의 다양한 개체들로 향하는 지성의 활동을 “논리적 규정”(logische Determination)이라고

부른다.

“최고의 완전한 규정은 더 이상 어떤 규정(Bestimmung)도 부가하여 생각할 수 없는 철저히 규정된 개념(conceptum omnimode determinatum)이다.”

그런데 “단지 개별 사물들 내지 개체들만이 철저히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개체에 대한 철저히 규정된 인식은 개념이 아닌 단지 직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때,

“개념에 의한 그 어떤 논리적 규정도 결코 완성된 것으로 보아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개체에 적용되는 개념은 단지 관습적으로 최하위 개념으로 간주되어 사용되는 것일 뿐, 아직 더 세밀히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Logik*, §15.)

칸트에 의하면 이런 논리적 반성 속에서 반성개념들의 사용 역시 필수적이다.

“우리가 한갖 논리적으로 반성할 때, 우리는 두 개념들이 동일한 것(dasselbe)을 포함하고 있는지, 서로 배설되는지(widersprechen), 또한 어떤 것이 개념 속에 내적으로(innerlich)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그것이 부가된(hinzukommen) 것인지, 또, 두 개념 중에 어느 것이 주어진(gegeben) 것[질료]이며, 어느 것이 단지 주어진 것을 사고하는 방식(Art)[형식]으로 타당한지를 오직 지성 속에서 비교하는 것이다.”(B335) 이런 지성의 비교활동은 판단 形式 속에서도 증시될 수 있다. 즉, “모든 판단을 내리기 앞서, 우리는 개념들을 비교한다. 예컨대 “전칭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 아래 여러 표상들의) 동일성(Einerleiheit)이 주목되고 특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차이성(Verschiedenheit)이 고려되며, 일치됨(Einstimmung)이 주목되어 긍정 판단이, 모순됨(Widerstreit)이 고려되어 부정 판단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상술한 개념들을 비교개념이라고 불리도록 좋을 듯하다.”(B318)

우리는 여기서 종래 이상론자들에 의해 선호되어 온 이런 논리적

반성 속에서도 항상 재료가 형식에 앞선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듯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위의 개별표상들을 보다 상위의 보편적인 일반개념 아래 포섭시키는 분류작업(Klassifikation)에 있어서나, 상위의 보편개념으로부터 하위의 개별표상들로 종별화(Spezifikation)하는 작업에 있어서나 한갓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를 비교해 볼 때는, 질료가 형식에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규정(Bestimmung)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석적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모든 규정(형식)은 규정 가능한 것(질료)을 전제하며, 규정할 수 없는 것 없는 규정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순수지성의 개념들에 있어서는 質料가 形式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지성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념에 있어서는) 그 무엇이 먼저 주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B323)

그러나 이렇듯 한갓 논리적 반성 속에서 설정된 질료 형식 관계의 규정이 이성론자들의 생각처럼 존재자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유한한 인간의 순수 지성이 한갓 개념만에 의해 사물 자체를 창조해 낼 수 있다거나 또는 지적지관을 소유하여 개념적 사고만으로 존재자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면, 이성론자들의 희망대로 한갓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반성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선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개체[현상적 존재자]에 대한 철저한 규정은 단지 개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 한갓 논리적 반성으로부터 존재자 자체의 질서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라이프니츠는 “현상을 지성화”(B327)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즉 라이프니츠-볼프에게 있어 직관과 개념, 감성과 지성은 단지 논리적인 명료성의 형식에서 차이가 날 뿐, 그 원천과 내용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명료하고 혼란된 감성적 직관도 궁극적으로는 개념 분석을 통해 명료한 지적 인식[분석판단]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본다²⁰⁾ “라이프니츠-볼프의 철학은 감성과 지성의 구별

20)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예컨대 하나의 쇠도 소리에 대한 지각은 단지 불명료하고 혼란된 인식이지만, 이것이 수많은 물방울 입자들이 부딪쳐 나는 소리

을 단지 논리적인 것으로 부으로써 우리 인식의 원천과 본성에 관한 연구에 부당한 관점을 제시했다.”(B62) 반면에 우리 마음을 백지로 간주하여 모든 인식의 원천을 단지 수동적인 감각과 내성에서 찾았던 “로크는 그의 개념발생론(Nooogonie)의 체계에 따라(만일 이런 말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모든 지성개념들을 감성화했다.”(B327)

“지성과 감성은 두 가지 전혀 다른 표상 원천이며 양자가 결합해서 만 사물[현상]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두 위대한 철학자는 각각 두 원천중 한 쪽에만 집착하여 이를 직접 사물 자체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진자의 표상을 혼란하게 하거나[라이프니츠] 혹은 징둔하는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로크]”(B327)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선행자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표상들 인반을 그것들이 유래한 상이한 인식 원천들과의 연관 속에서 반성”하는 “초월적 반성”이 요구된다. 즉, 마음의 기능에 대한 한갓 수동적인 內省이나 표상들의 내용과 주어진 원천을 도외시한 채 표상들의 관계만을 분석적으로 비교하는 한갓 論理的 反省에 앞서, 표상들의 원천인 마음의 능력들 자체에 대한 만성이 요구되며 상이한 표상들과 그 인식 원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만성해 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종래 경험론과 이상론을 넘어서 양자를 만성 속에서 지양하고자 한 칸트의 “초월적 만성”이 노리는 것이라 하겠다.

3. 초월적 반성

칸트는 자신의 초월적 反省(transzendente Reflexion)을 한갓 는

임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명료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Leibniz, *De la nature et de la grace, fondés en raison*, §13 참조.)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주어 개념에 이미 내재된 (in-esse) 술어들을 이끌어 내는 분석판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장이 없는 <단자>(monad)라는 형이상학적 실체 개념이 생겨난다.

리적 反省과 구별한다. 즉 표상들의 “內容上” 유래(Ursprung)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어진 표상들의 관계 비교에 그치는 논리적 反省과는 달리, 초월적 反省은 “주어진 표상들과 우리의 상이한 인식 원천들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작용(das Bewußtsein des Verhältnisses gegebener Vorstellungen zu unseren verschiedenen Erkenntnisquellen)이다.”(B316)²¹⁾ 즉, 이런 反省 속에서는 표상들 간의 관계만이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들이 유래한 인식능력들(감성 또는 지성)과의 관계 속에서 內容적으로(직관 또는 개념) 비교되며, 그것들의 객관적 타당성이 또한 고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논리적 反省은 한갓된 비교(bloße Kompara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논리적 反省에 있어서는, 주어진 표상들이 귀속하는 인식능력은 전적으로 도외시되고 따라서 표상들이 마음 속에 위치하는 한은 동종적인 것으로(gleichartig) 간주되기 때문이다.”(B319) 그러나 개념의 논리적 形式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즉 “도대체 사물들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일치하는지, 對立되는지가 문제인 경우에는, 사물들이 우리 인식능력에 대해 二重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즉 감성에 대한 관계와 지성에 대한 관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물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은 그것들이 감성과 지성 어느 곳에 위치하는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초월적 反省, 다시 말해, 주어진 표상들과 하나 또는 다른 하나의 인식방식과의 관계 의식만이 표상들 서로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물들이 같은가, 다른가, 일치하는가, 대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갓 비교를 통해 개념들 자체만으로 결정될 수 없고 초월적 反省에 의해 사

21) 칸트는 「判斷力批判 第一序論」(erste Fass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1789) V章에서, 反省일반의 기능을 판정능력이라고도 불리는 反省的 判斷力(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유와 같이 구별한다. 즉 “反省한다.(reflektieren: überlegen)고 함은, 1) 주어진 표상들을 그것에 의해 가능한 개념들과 인관하여 다른 표상들과 비교하거나, 또는 2) 주어진 표상들을 자신의 인식능력과(mit seinem Erkenntnisvermögen) 대조하는 것이다.”(H 16)

물들이 귀속하는 인식방식[직관 또는 사고]의 구별을 통해 미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B318) 따라서, 표상들의 원천인 인식능력의 구별을 통해 “對象들 자체와 관계하는”(A263), 對象 관련적·존제론적 反省인 초월적 反省은 “표상들 서로간의 客觀的 비교를 가능케 하는 근거를 포함”(B319)하고 있는 것인 한, 논리적 反省과는 구별된다.

즉, 논리적 反省에 있어서는 주어진 표상들이 귀속하는 인식능력과 관계가 도외시된 채 그것들이 표상인 한 동종적인 것들로 간주되어 한갓 표상들의 관계만이 비교되는데 만해, “초월적 반성 속에서는 표상들과 그것들이 놓여지는 인식능력을 대조하여, 이를 통해 표상들이 순수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 감성적 직관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를 구별하는 활동이다.”(B317) 따라서, 안과 밖, 質料와 形式 등의 “비교의 관전”(respectus der Vergleichung)²²⁾에서 수행되는 초월적 反省에 의해 경험 가능성의 조건들이 발견된다. 즉 초월적 반성 속에서 그 근거를 우리 밖에(außer uns) 갖는 감각은 규정 가능한 요소[Material]로 반성되고 그 근거를 우리 안에(in uns) 갖는 실험적 표상들(공간·시간표상, 범주들 및 도식들)은 규정하는 요소[Form]로서 反省된다. 이때 감각, 시간·공간표상의 잡다(多様 Mannigfaltigkeit)는 수용성(Rezeptivität)인 감성에 통일(Einheit)의 形式인 범주들은 자발성(Spontaneität)인 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反省된다. 나아가 이렇게 분절된 요소들의 관계구조, 그것들의 결합(reine Synthesis)의 가능성이 반성 속에서 주제화된다. 또한, 단지 표상의 主觀的 원천인 인식능력들의 활동方式으로서 반성된 인식 形式들이 과연 사물 일만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들의 타당한 사용의 限界가 문제시된다. 따라서 이런 “초월적 反省의 수행은 사물에 관해 어떤 것(etwas)을 실험적으로 판단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다.”(B319)

22) Heimsoeth, “Herkunft u. Entwicklung von Kants Kategorientafel” in: *Zur Kantforschung der Gegenwart* (herg. von P. Heimtel), Darmstadt, 1981, S. 31

그렇다면, 이제 칸트의 초월적 反省 속에서 그 근거를 ‘우리 안에’ 지니는 것으로 반성된 形式들의 선형성(Apriorität)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후험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닌 한에서, 시간적으로 경험에 선행한다는 의미의 “다고난” 선천성을 뜻하는 것인가?

“批判(Kritik)은 결코 다고난 선천적 표상[분유 관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직관에 속하건, 지성개념에 속하건, 표상들은 모두 획득(erworben)것으로 간주된다.”²³⁾

물론 칸트는 여기서 인식의 형식들이 경험으로부터 추상되어 파생적으로 획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획득에는 경험적 획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학자들이 표현하듯이) 행위 이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행위 이전에는 어떤 사태도 그에게 귀속되지 않던 것에 대한 근원적인 획득(eine ursprüngliche Erwerbung)”도 있기 때문이다.²⁴⁾ 즉 한 사물의 “근원적 획득”이란 부디신[가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분유관념[의 상속]한갓 개념적 분

23) Kant, Über eine Entdeckung, nach der alle neue Kritik der reinen Vernunft durch eine ältere entbehrlich gemacht werden soll.(1790), A 68 (以下 Über eine Entdeckung으로 약칭)

24) 칸트는 “근원적인 획득”(acquisitio originaria)이란 용어를 자연법학자들(die Lehrer des Naturrechts)에게서 차용해 오고 있다.(Kant,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14.) “근원적 획득”(acquisitio originaria)이란 용어는 이미 ‘로마법’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Cicero, *De officiis*, I, 7; Grotius, *De iure belli et pacis* II, 3; Pufendorf, *Ius naturae et gentium* IV, 6) 또한 헤겔의 법철학에서도 이 개념은 “점유취득”(Besitznehmung)의 개념 속에 지양되어 보존되어있다. 그에 의하면 점유취득에 의해 “개념상의 인간, 즉 가능성과 능력, 소질로서의 인간이 현실적인 것으로 정립된다.”(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wissenschaft im Grundrisse* §57) 즉,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도야 형성함(Ausbildung)으로써,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외식이 자신을 자유로운 것으로서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점유하여 자기의 소유로 되며, 타자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된다.”(ibid., §50)

식]에 의한 이미 예정되었던 소유권의 손쉬운 이전이 아니며, 그렇다고 나인[대상]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물[인상들]을 매입[경험적 추상]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얻게 되는 사물에 대한 추후적인 소유권의 취득도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한 사물[시간 공간 및 범주]에 대한 소유와 정당한 사용의 권리를 주체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비로소 최초로 획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근원적인 획득의 과정을 우리 인식의 형식들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시간·공간이나 범주와 같은 순수 형식들은 선천적으로 시간상 경험에 앞서 타고난 것이 아님은 물론 추후적으로 “감각지각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진 것도 아니다.(왜냐하면 감각은 질료를 줄 뿐 인간적 인식의 형식을 줄 수 없으므로) 오히려 감각되는 것을 지속적인 법칙에 따라 질서지우는 인식능력의 활동성 자체로부터(von der Tätigkeit selber der Erkenntniskraft; ab ipsa mentis actione) 이끌어 내어진 것이다.”²⁵⁾ 즉, 우리 인식능력이 “경험을 기회(occasione)로 하여 작용하는 자신의 활동들에 주목함”²⁶⁾(auf ihre Handlungen achtet; attendendo ad eius actiones)으로써 “근원적으로 획득”(acquisitio originaria)²⁷⁾된다. 대상의 촉발에 의해 주어지는 감각인상들은 우리 인식 形式들을 “산출해내는 기회원인”(B118)이 될 뿐 그 원천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능력은 직관의 形式과 사고의 형식을 “대상들로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성립시키는”²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감각을 기회로 지성의 활동성을 움직이게 하며 (setzen in Bewegung) 지성의 법칙에 따라 보편적 관계로부터 추상된 관념을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상적인 감각 없이는 우리 안의 어

25) Kant,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1770) §15. A23.

26) *ibid.*, §8. A11.

27) *Über eine Entdeckung*, A68.

28) *Op. cit.*

된 관념도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코의 규칙이 여기서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지성의 개념들(notiones rationales)은 물론 감각을 매개로 생겨나며 감각으로부터 추상되는 개념에 적용될 때 사코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감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부터 추상되는 것도 아니다.”(R. 3930)²⁹⁾ “따라서 이런 선형식 표상들이) 바로 그렇게 신뢰하며, 달리 신뢰하지 않음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々觀 속에 있어야 하며, 또 이런 표상들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대상들에 관계 맺을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근거 역시 々觀 속에 있어야만 한다.”

칸트는 선형적(a priori) 표상들인 시간·공간 및 범주들의 근거가 주관 속에 선천적인(angeboren ; connatus)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표상들 자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기회로 사용됨을 통해 비로소 “근원적으로 획득”(acquisitio originaria)된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 인식 形式의 “선형성”(Apriorität)의 의미는 그것들의 획득에 있어 “근원성”(Originarität)을 말한다. 이에 반해 경험적 개념처럼 후험적으로 주어지는 표상들은 “파생적으로 획득”(acquisitio derivativa)된 것이다. 칸트는 시공 표상이나 범주와 같은 인식 형식들이 “감각 경험을 기회로” “경험과 더불어”(mit der Erfahrung) 획득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험론에 동조하는 듯 하지만, 이런 인식 형식들이 일반 개념처럼 “경험으로부터”(aus der Erfahrung) 파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원천과 뿌리부터, 즉 그것이 경험을 기회로 개발될 수 있는 “싹과 가능성”을 인간의 인식능력 자체 속에 이미 선천적으로 지닌다고 보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성론에 가깝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근원적 획득>이라는 자연법적 개념과 연관하여 해석된 인식 形式의 “선형성”에 관한 칸트의 이렇듯 미묘한 입장 표명을 우리는, 칸트가 “순수이성”을 생명체에 비유하여 그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워 볼 때 보

29) XVII, 352. 이는 대략 1769년경의 반성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W. Carl, *Der schweigende Kant Die Entwürfe zu einer Deduktion der Kategorien vor 1781*, Göttingen 1989, S. 107f 참조.

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당시의 생물학의 제 학설들과 당대의 철학적 입장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범주가 경험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경험론의 주장을 인종의 “나원발생설”(generatio aequivoca)로서 간주하고, 인식의 형식들은 이성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유관념으로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이싱톤의 주장은 일종의 “예정형성체계”(Präformationssystem)라고 특징짓는다. 그리고 칸트는 이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입장을 순수이성의 “추가발생체계”(System der Epigenesis)(B167, R.5637)로서 제시하고 있다.³⁰⁾ 칸트가 당시 생물학의 입장을 원용하여 비록 비유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싱의 “추가발생체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칸트에 있어 이싱의 형식이 가능한 경험과 연관하여 질료적 내용을 질서지우고 조직화하는 작용 속에서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 자기를 전개하는 활동적인 측면을 지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 철학 일반에 관해 “내용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주관성의 추상적 형식들만을 다룬다”³¹⁾는 칸트의 ‘형식’ 개념의 추상성

30) 추가발생설이란 당시 생물학의 한 학설로서, 다양한 무기물에서 유기체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나원발생설과 구별되며, 씨앗이 이미 거기서 식물 생물의 완전한 형태를 미리 갖추고 있다고 본 예정형성설과도 구별되는 입장으로서, 씨앗은 완전된 유기체로 성장할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만 외부의 물질을 흡수 동화시켜 성장함으로써 완전한 형태로 점차 분화한다는 설이다. 칸트는 이런 ‘추가발생설’의 대표자로 “형성충동과 생식행위에 관하여”(Über die Bildungstrieb und das Zeugungsgeschäft, 1781)라는 저술로 유명한 당시 독일의 해부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J. F. Blumenbach(1752~1840)를 직접 인용하면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Kant, *Kritik der Urteilskraft* §81 참조.) ‘추가발생설’에 의하면, 비유기적인 물질로부터 유기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1) 한목적적 소질(die zweckmäßigen Anlagen), 2) 형성충동(Bildungstrieb), 3) 가공되지 않은 재료(rohe Materie)라는 3 조건이 필요하다.(H. W. Ingensiep, “Die biologischen Analogien und die erkenntnistheoretischen Alternativen in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27”, *Kant-Studien* 85 Jahrg., 1994, S. 381-393 참조)

31)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I, §46, Werke Bd. 8, Suhrkamp, 1986, S. 247.

에 대한 해겐의 지적은, 칸트에 있어 ‘순수이성’(ratio pura)이 독단적 이성론에서처럼 경험과 분리된 채 한갓 개념들의 논리적 연관만을 반성하는 추상적 이성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과 밀접히 연관된 대상 관련적인 성격을 지닐을 고려해 볼 때, 철학사상 중대한 실수로 오히려 간주되어야 한다. “내용(Inhalt) 없는 사고(Gedanke)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B75)라는 잘 알려진 명제 속에서 뚜렷이 드러나듯, 칸트는 인식의 요소로서 이성이 자발적으로 산출한 形式 못지 않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質料를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에 있어 ‘형식’이란 모든 질료적인 내용과 무관한 공허한 형식논리적 사고를 내지 한갓 추상적인 개념 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과 연관하여 재료를 소화시켜 실질 내용적인 대상 인식을 성립시키는 “경험을 가능케 하는 원리”(B169)다. 즉 칸트에 있어 한 대상을 형성하는 ‘인식’의 본질은 개념적인 분석과 추상에 있다기보다는, 그에 앞서 직관적인 내용의 종합에 있고, 따라서 한 대상에 관한 인식은 질료와 형식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질료를 형식에 동화시키고 포섭함으로써 내용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다.³²⁾

32)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하여 칸트의 선형적 형식을 생물학적 구조나 기능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시도가 최근 인식론 분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콘라드 로렌츠(K. Lorenz)의 논문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비추어 본 칸트의 선형성에 관한 이론”(“Kants Lehre von Apriorischen im Lichte gegenwärtiger Biologie” in: *Blätter für deutsche Philosophie*, Bd. 15, 1941/42)을 필두로 엥프리데 보이머(E. Teumer)의 “생물학에서 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관의 철학적 문제”(Philosophische Probleme der Wechselbeziehung von Struktur und Funktion in der Biologie, 1964)나 마틴 쉐호른(M. Schellhorn)의 “생물학적 체계의 구조, 조직화와 진화의 문제”(Probleme der Struktur, Organization und Evolution biologischer System, 1969) 등으로 대변되는 생물학적 인식론자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런 경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이해를 위해서는 E. Heintel, *Grundriss der Dialektik*, I. Darmstadt 1984, S. 117-133 참조.) 그런데 오늘날 생명 현상에서 보여지는 진화과정을 자기조율(Selbstüberbietung)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궁극목적과

Ⅲ. 맺음 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험적 반성**에서는 일면적으로 수동적인 지각의 관점에서 경험적인 의식의 소여들을 내적으로 지각(내성)할 뿐이며, **논리적 반성**에 있어서는 일면적으로 지성적 사고의 관점에서 동종적인 개념들의 논리적 연관만이 비교되는데 반해, “**초월적 반성** 속에서는 표상들과 그것들이 놓여지는 인식능력을 대조하여, 이를 통해 표상들이 **순수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 **감성적 직관**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를 구별하는 활동이다.”(B317) 따라서 **안과 밖, 질료와 형식** 등의 “비교의 관점”(respectus der Vergleichung)에서 수행되는 **초월적 반성**에 의해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 발견된다. 즉 칸트의 초월적 반성 속에서 그 근거를 우리 **밖에**(außer uns) 갖는 감각은 규정 가능한 요소, 즉 **質料**로 반성되고 그 근거를 우리 **안에**(in uns) 갖는 선형적 표상들[공간·시간표상, 범주들 및 도식들]은 규정하는 요소, 즉 **形式**으로 반성된다. 이때 감각, 시간·공간표상의 **잡다**(多様 Mannigfaltigkeit)는 **수용성**(Rezeptivität)인 **감성**에, 통일(Einheit)의 **形式**인 범주들은 **자발성**(Spontaneität)인 **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反省**된다. 나아가 이렇게 분절된 요소들의 관계구조, 그것들의 결합 가능성이 반성 속에서 주제화된다. 또한 단지 표상의 주관적 원천인 인식능력들의 활동방식으로

연관시켜 보려는 해석의 관점(K. Rahner, “Die Homoinisation als theologische Frage” in: *Das Probleme der Homoinisation Über den biologischen Ursprung des Menschen*, Freiburg 1961, S. 13-90; B. Weissmahr, *Philosophische Gotteslehre*, Stuttgart 1983, S. 135-178. 참조)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실증적인 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신학적인 해석 양자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의 입장에서 포용함으로써 양자를 지양한 제3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서 반성된 인식 形式들이 과연 사물 일반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들의 타당한 사용의 限界가 문제시된다.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이런 “초월적 반성의 수행은 사물에 관해 어떤 것을 선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나.”(B319)

수동성과 자발성의 결합체인 인간 이성은 그 형식을 미리 완성된 타고난 형태로부터 모두 이끌어낸 것[Präformationssystem 연역]도 아니며, 그렇다고 무심격한 백지에 각인되듯 오직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파생적으로 획득[acquisitio derivativa 귀납]한 것도 아니다. 인간 이성은 경험을 기회로 자신의 힘들을 사용함으로써 감성과 지성의 이원성이 결합되며,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재료들을 질서 지워 하나의 대상 개념을 형성하는 경험인식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형식을 스스로 형성하고 실현[System der Epigenesis]한다. 따라서 이성의 자발적 활동성에 의해 “근원적으로 획득된”(acquisitio originaria) 인식 形式들을 반성적으로 주체화하는 초월적 반성은 한갓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하는 추상적 형식논리적 反省과 구별될 뿐 아니라, 단지 주관의 심리적 상태를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심리적 내성과도 구별된다. 즉, 이러한 이성의 자기 반성의 수행은 a priori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의해 근원적으로[a priori] 획득된 형식들을 감각적으로 인식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 즉 이런 形式들의 정의와 그것들의 결합은 비록(시간적으로는) 경험이 그것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a priori 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³³⁾ 이렇듯 경험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인식 方式들을 그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다루는 인식”(B25)이 “초월적 인식”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초월적 만성의 수행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인간적 인식의 본질은 경험본자들의 생각처럼 감성적 지각을 통한 유사 인상들(impressions)의 반복 경험에 따른 귀납적 일반화라는

33) H. Vaihinger, *Komment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I*, Stuttgart 1892, S. 135.

수동적 모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종래의 합리론자들의 생각처럼 경험을 도외시한 채 신적 이성[ratio pura]에 의한 지적 직관과 연역적 체계화에 의해 독단적으로 선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성론자들이 감성적 수용성을 무시한 채 이성능력의 자발성을 지나치게 과신했다고 한다면,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이성능력의 자발성을 무시한 채 감성적 수용성만을 과대 해석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마치 유기체와도 같다. 그것은 수동성과 자발성의 결합체다. 따라서 인간적 인식은 신적인 자발성을 요구하는 지적 직관의 모델이나 무기리한 수동성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모델에 의해서보다 생물의 유기적 형성활동에 비유될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오늘날 컴퓨터로 대변되는 인공두뇌의 모델에 따른 인지과학적인 연구가 인간적 인식의 본질을 밝혀주리라는 소박한 기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연산규칙의 모델에 따른 오늘날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델에 따른 반성적인 재검토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론적 반성에 의해 다시 철학적으로 정초되어야만 할 것이다.³⁴⁾

34) 오이저와 사이넬베르거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의 작용방식과의 단적인 차이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두뇌는 생명체의 기관(Organ)으로서 그 자체가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자신의 형식을 형성하는 과정”(der seine Form bildende Prozeß)인 데 반해, 컴퓨터는 “고안된 구조설계에 따라 죽은 재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기계”(eine aus totem Material nach einem erdachten Bauplan hergestellte Maschine)요, 논리적인 일련의 계산을 수행하도록 코드화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미소소 결과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진 기계장치나, 그러나 유기체의 “두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장치)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분리는 불가능하다.”(E. Oeser und F. Seitelberger, *Gehirn, Bewußtsein und Erkenntnis*, Darmstadt 1988, S. 104)